



# 천지창조

창세기 1:1~1:25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떤 것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온통  
깜깜했던 세상이 환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날이  
첫째 날입니다.

둘째 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라."

하나님께서서는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고, 물 가운데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1)



3

셋째 날,

**"물이 한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나님께서 모인 물을 '바다'라 하시고, 물을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풀과 채소와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

**"하늘에 광명이 있어 밤과 낮으로 나뉘게 하라."**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해는 낮을 비추게 하고, 달과 별들은 밤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다섯째 날,

**"물에 생물이 살고, 하늘에는 새가 날으라."**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와 물에 사는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또 하늘을 나는 모든 새들을 각각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동물을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편히 쉬셨습니다.



# 오늘의 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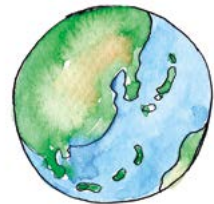
##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1. 다음 그림을 보고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을 연결해 보세요.



2. 모든 물건에는 만든 사람이 있고 그것을 보면 만든 사람의 능력과 솜씨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는 누가 만드셨을까요?

-----



3. 옆의 그림에서 엄마는 누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을까요?

-----

4. 아기의 엄마는 태어날 아기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 만드셨을까요?

-----

-----



#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용준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앞산에 올라갑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꽃과 나무를 보면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아침을 먹습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용준이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합니다. 밥과 반찬,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가다가 지지귀는 참새들과 옆집 강아지를 보며, 또 늦은 저녁 집에 오는 길에 빛나는 별을 보면서 용준이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하루를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만드신 것을 적어 보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_\_\_\_\_ 을(를) 만드셨어요.


 나는 오늘도 맛있는 \_\_\_\_\_ 을(를) 먹어요.

이 음식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셨어요.

다윗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 8편을 읽고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글을 써 보세요.



# 알아볼까요

## 그리스 로마 신화는 사실인가요?

요즘 만화책과 만화 영화를 통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보거나 들었을 거예요.

헤라클레스가 나타나 거인족들을 물리치는 장면은 아주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만화나 책으로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그리스 로마 신화는 사실일까?라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신화는 세계 어느 나라에나 있고 우리나라에도 단군 신화가 있어요. 이처럼 나라마다 천사, 악마, 요정, 괴물들이 나오는 신화가 있습니다.

그럼 각 나라마다 왜 신화가 있을까요?

자신의 나라나 민족이 얼마나 위대하고 멋있는 사람들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야기로 만들어 남긴 것입니다.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신을 찾아 믿고 싶어 했기 때문이지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호세아 13:4)

<p><b>부모님</b> 란</p>	<p><b>선생님</b> 란</p>
-------------------------	-------------------------